

# 술마시고 핸들잡는 교원 갈수록 증가

## 도내, 총 31명 한해평균 6명 음주운전 징계 받아... 올 들어 6개월 만에 전년대비 100% ↑

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30일 발표한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

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교장 포함)이 총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평균 6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는 셈이다.

전북은 2011년 2명에서 2012년 6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 2015년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와는 달리 전북의 음주운전 교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 6개월 만에 전년대비 100%인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교사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교사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 부재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고민형기자

## 조선왕조실록 복본 '파주북소리'에 전시

전통한지 출판 인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 무대에 전통한지로 복본된 조선왕조실록을 선보였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출판문화의 클러스터인 파주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2016 파주북소리'에 '조선왕조실록 복본'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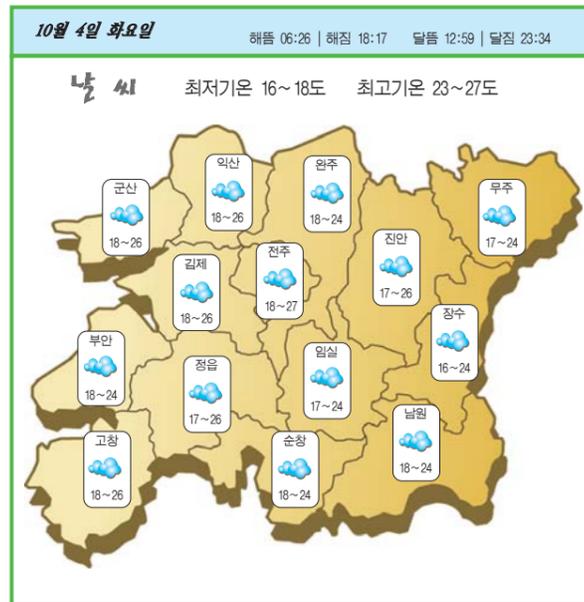
이번 파주북소리 축제는 국제적인 출판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에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출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되며, 출판도시 입주사와 외부출판사, 관련 단체 등 200여 곳이 참여했다. 전시는 지난 '2016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에 이어 '천년을 가는 중'이로 불리는 전통한지와 현대의 첨단 인쇄기술이 결합돼 출판 인쇄 소재로서의 전통한지 제조기술의 가능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재 기자



화랑훈련 사후검토 보고회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김경수 35사 단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및 관 군 경 참석자들이 화랑훈련 사후검토 보고회를 갖고 있다.



###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다문화 체험의 날' 프로그램

####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 체험

전주시가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돕고 있다.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문화 체험의 날은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도서관 다문화자료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선생님들이 재미있고 이색적인 다문화 국가의 문화와 전래동화, 전래놀이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참가 어린이들이 매 시간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다문화 체험의 날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도서관에 마련된 다문화자료실은 영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7,600여권의 다양한 국가의 도서가 비치돼 이용자들이 각 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http://www.wku.ac.kr/ 21세기 문화인재를 키우는 원광대학교

| 원광대학교                                   | Search |
|-----------------------------------------|--------|
| 원광대학교 프라이머 사업 대형 선정                     |        |
| 원광대학교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이행 수준 최고 등급 획득 |        |
| 원광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        |
| 원광대학교 서울 ↔ 익산 KTX 1시간대                  |        |
| 원광대학교 1학과 1기업 창업 지원                     |        |
| 원광대학교 의대·치대·한의대·약대·로스쿨 보유               |        |

70th 공립인 70년 빛의 100년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자립대학 특성화 사업(CX-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2015 대한민국 최고교육대상

## 전주시, 공공데이터 스마트 앱 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주시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앱 등 공공서비스 활용사례를 모집하는 '시민과 통(通)하는 스마트 앱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3.0'에 따라 정보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개방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민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앱 개발 활성화와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1명) 100만원, 장려상(2명) 각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된 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시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서비스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추가 데이터 개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25여종의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총 66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왔다.

대표적으로, 아마추어 축구매치를 연결해주는 '바로매치 앱'과 시내버스의 운행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내버스 앱' 등이 민간분야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 '바로매치'의 경우에는 초창기 아마추어 축구매치를 기반으로 현재 축구용품 온라인 판매 기능까지 추가해 비투컴을 창업했고, 시내버스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용 등으로 7개 이상의 앱이 개발돼 하루 평균 50만건 이상이 조회되는 등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도 유용하고 경제까지 창출까지 이어지는 작품을 많이 출품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체험 홈 추가설치

### 일상생활·사회적응 위한 교육·체험 등 경험

전주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전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홈을 오는 10월까지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탈 시설 체험홈'은 자립희망자가 자립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곳으로, 일반 주거지역 주택에서 최대 4명이 재활교사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 및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공간이다.

시는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단체) 중 1주택(방 3개 이상)을 확보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체험홈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체험홈이 설치되면 1개소당 4명씩 총 12명의 탈 시설 희망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게 되며, 체험홈에는 전담인력 1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체험홈 입주 장애인은 최초 2년 동안 거주하고, 필요시 연장해 생활할 수 있다. 이후, 자립생활이 준비될 수 있다.

마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로 나가 생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 시설을 돕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장애인 욕구조사 및 탈 시설 운영, 탈시설 관련 조례 및 제도 정비, 자립 네트워크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또, 지난해에는 탈 시설 공동생활 가정 8개소를 설치해 현재 32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는 탈 시설 체험홈 2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탈 시설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지역사회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전보다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돈 관라나 요리 등을 더 배우고 익혀서 자립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집단 생활 시설지원에서 장애인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지역사회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은 노력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